



김영태 남원시장, 의정혁신 부문 대상 수상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이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2025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평소 김영태 의장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살기좋은 남원만들기에 적극 앞장서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이뤄졌다.

특히 김영태 의장은 농가 병충해나 자연재해 등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 신속히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개선하는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의정에 주력했다.

김영태 의장은 "뜻깊은 상은 더 잘하라는 의미로 주신 줄 안다며, 앞으로도 남원 시민의 평안한 일상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란 어떤 현장이든 가장 먼저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 효행·선행상 시상식

바르게살기운동 전주협의회는 지난 12일,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알펜시아 웨딩홀에서 '제31회 효행·선행상 및 우수회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역사회에서 효행과 선행을 실천하고, 모범적인 가정과 봉사활동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상·선행상·모범가정상 수상자 6명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에 김갑배 수석부회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 이현숙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에 조천목 산악회장이 각각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주시 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포함해 총 50여 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다.

행사에는 수상자와 가족을 비롯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지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의 공로를 함께 축하하고, 효와 나눔, 질서와 화합의 사회적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진행됐다.

바르게살기운동 전주협의회 장성태 회장은 "이번 시상식은 목북이 이웃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의 노고를 알리고, 효행과 선행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노인복지센터, 방한조끼 등 지원사업 진행

김제시는 김제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남주)가 15일, 겨울철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 및 정서 지원을 위해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 with 방한조끼 & 김장김치'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 1권역(검산동, 만경읍, 백산면, 청하면, 진봉면, 성덕면, 광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총 1,039명에게 방한조끼를 지원하며, 이 중 취약 돌봄 대상자 180명에게는 5kg 김장김치를 추가 지원했다.

센터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혹한기 동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난방비·식비 등 겨울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말을 맞아 신년 선물처럼 전달되는 방한조끼와 김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추억과 위로를 제공하며,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남주 센터장은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며, "김치와 방한 조끼 덕분에 울겨울은 몸도 마음도 따뜻할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남주 센터장은 "작은 선물이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노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축산업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하림, 유니아이와 'AI 스마트팜 플랫폼 공동개발' 협약 체결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주)유니아이(대표이사 백승환)와 협력하여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선 인공지능 전환(AI) 가속화에 나선다.

(주)하림은 15일 익산에 소재한 본사에서 (주)유니아이와 '스마트팜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하림 정호석 대표이사와 조현성 사육사업본부장 (주)유니아이 백승환 대표이사와 (주)유니아이 해외 네트워크 자문을 맡고 있는 KAIST 김만기 교수 등 양사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미래형 양계 산업 구축을 위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주)하림이 축적된 사양관리 전문성과 (주)유니아이의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하여 고도화된 스마트팜 생태계를 구축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양사는 다음 두 가지 핵심 플랫폼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농장 운영 관리 플랫폼(농장 생산성 플랫폼)은 사양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농장 지원 운영 플랫폼은 농가 지원, 모니터링, 출장 관리 등 현장 운영 업무를 표준화하고 디지털화에 시스템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주)하림은 다년간 축적된 사양관리 노하우와 실제 농장 운영 데이터를 제공하며, 개발된 시스템



의 시범 농장 테스트 및 검증을 적극 지원한다. (주)유니아이는 AI·로보틱스 기반의 플랫폼 개발과 더불어 IoT(사물인터넷)·센서·지동화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지원을 전담한다.

단순 기술 제휴를 넘어선 사업적 협력도 구체화했다. 양사는 개발된 플랫폼을 국내 농장에 적용한 후, 공동 영업 및 컨설팅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검증된 K-양계 스마트팜 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한편, (주)하림과 (주)유니아이는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플랫폼 구조 설계 및 기능 정의에 착수하며, 실증 테스트를 거쳐 순차적으로 농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완성된 최적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외 스마트팜 컨설팅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역산=이재춘기자



건협 전북, 연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15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희망의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전북도청 지사실에서 오전 9시에 진행됐으며,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계층이 보다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소재철 회장은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역건설업계가 중심이 돼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과 상생의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가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고 있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나눔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세아베스틸, 희망2026나눔캠페인 참여

(주)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이 15일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여 총 4,091만 원 상당의 성금·품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된 성금·품은 (주)세아베스틸 임직원의 급여 끝 전 모금액과 회사 기부금으로 성금 3,155만원과 전기매트 150개(현금 936만원 상당)이다.

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세대·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전달받은 성금·품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김제시 제3호 명장 선정

'미용' 김진란 비엔나헤어비스 대표

김제시는 15일 2025년 김제시 3호 명장으로 선정된 미용직종의 김진란(비엔나헤어비스 대표)씨에게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 3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김제시 제3호 명장은 관련 분야 전문위원들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숙련기술인의 자격을 검증한 뒤, 김제시 명장심사 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김진란 명장은 30년 경력의 미용사로 다년간의 현장 경험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미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고전머리(쪽머리, 거두머리), 현대머리(이브닝업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링 기법에서 탁월한 숙련도를 보여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그 기술력을 입증했다. 또한 헤어브러쉬 손잡이 디자인등록 논문 발표, 작품 전시회 등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지속하며 미용 기술을 개발하고 알리는 데 노력해 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다불어 지역 내 미용봉사활동과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명장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진란 명장은 숙련기술인으로서의 장인정신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겸비한 분"이라며 "앞으로도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지역 후배 미용인들에게 전수하고, 김제 미용산업과 문화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 죽향동서 나눔 분위기 확산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점숙)는 지난 12월 11일, 죽향동 봉장협의회가 성금 130만원을 기부하고 봉장협의회 장문영 회장이 개인 성금 200만원, 주민자치회 조의남 위원장이 100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매년 개인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명성화학, 남원 훈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기탁

남원시 관계자는 15일 관치농공단지 명성화학(대표 신이봉)에서 훈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이봉 대표는 2015년 훈향장학재단과 '10년간 총 1억 원 기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는 협약 기간인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약정대로 기탁해 남원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난해에 협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올해도 1천만원 기탁에 나서며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갔다.

신이봉 대표는 "아이들은 남원의 미래라며, 지역 청소년들이 더 큰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통동 발전협의회, 백미 등 후원물품 기탁

남원시 동통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말을 앞두고 동통동 지역사회를 위한 훈훈한 기부가 이어져 따뜻한 귀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 발전협의회(회장 김상태)는 15일 백미10kg 30포와 식용세트 100개 등 3백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백미와 식용세트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통동 내 저소득 가구와 소외 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 이신미씨,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최우수



고창군 청년 이신미씨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에서 총 33개 참여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신미씨는 고창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시제품을 선보여,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실제 시장 진입 가능성과 향후 브랜드 확장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최종 1위에 선정됐다.

이신미씨는 "전통주를 통해 고창의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남원시에 배분사업비 전달

남원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명규)가 15일 남원시청에서 총 5,900여만원의 2026년도 배분 사업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분되는 금액은 사람의 열매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6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남원시 내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배분 사업비는 △사회복지 기관 차량 구매 △사무용 PC 지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으로, 사람의 열매는 모금된 성금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필요를 반영한 배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약사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김제시는 김제시약사회(회장 박환철)가 15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의미있는 실천으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시약사회는 맞춤형 복지지도와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꾸준한 기부와 봉사 활동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기반을 넓혀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박환철 회장은 "이번 기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